

PAM을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우석

수도원 회원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5가지 지침을 준수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 * 매일 아침, 낮, 저녁에 하루 세번 기도 드리기
- *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 * 매일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일을 한가지 실천하기
- * 가정과 학업, 직업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 *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영,육의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 노력하기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수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삶은 분주함에 나날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두자매에 대한 내용으로 (누가복음 10:39-40) 나와 많은 분들은 마리아의 모습이 아닌 마르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진지하게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지 않을까요. 짧은 지식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수북히 쌓여서인지 초록색으로 다가오는 봄 햇살이 어느때보다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이른 아침에는 새들도 기지개를 펴고 노래를 부릅니다. 커피빈을 그라인더에 넣고 가는 소리와 함께 탁탁하고 죽을것 같았던 검게 그을린 커피빈에서 향기로운 커피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이른 아침에 귀한 여유를 줍니다.

커피빈을 보면서 내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조금이라도 날 수 있을까? 어느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곳 없네....."

그래도 내가 머무는 뉴욕 Cornwall on Hudson 타운에서의 창밖으로 눈 내리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 같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세상 속에서 만들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예수님의 평화와 평안을 느끼게 된 귀한 겨울 왕국이었습니니다.

'수도원 금요일 평신도 성경공부반' 이야기~

15년전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시기에 김창길 목사님과 김에스터 원장님의 초대로 매주 평신도 성경공부를 참석하게 되었고 이 계기로 지금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김에스터 원장님과 김창길 목사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짧은 몇주, 몇달의 성경공부가 아닌 체계적이면서 도전적인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말씀시간은 나의 고민도, 기도 제목도, 아픔까지도 빛 가운데 드러내면서 어느덧 시간이 2026년까지 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미국, 캐나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평신도 형제님들과 말씀과 기도, 찬송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길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화 모두가 감사의 시간입니다.

줌(zoom)

만남 영상으로 말씀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이 주는 화려함은 없지만 화면 너머로 어떠한 설

교와 말씀보다 뜨겁고 감격스런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이 아닌 죄인의 모습, 주님만이 나의 죄와 부패되고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은 나의 연약함을 새롭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이민 생활의 외로움이, 때로는 신앙적 갈등이 눈물이 되어 흐르기도 했지만, 그 눈물은 줌 화면을 타고 국경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제도권 교회가 미처 다 채워 주지 못했던, 삶의 밑바닥에서 피어난 실질적이고 진실한 교제였습니다.

PAM (Protestant Abbey Mission)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평신도 성경공부는 교회당에서 어그러지고 세속적인 또는 권위적인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퇴색되지 않도록 초대해주신 주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더불어 내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않고, 참된 평안으로 수도원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날은 아니지만 한번하는 날은 기진 맥진하는 수도원 봉사의 날 이야기'~

수도원에서 봉사는 교회와 전혀 다릅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은 성경말씀이 아닌 잔디깎는 기계와 깨끗한 옷이 아닌 땀과 흙과 먼지로 얼룩진 작업복과 땀으로 가득한 얼굴이었고 나의 시선이 머무른 곳은 높은 강단에 화려한 조명과 값비싼 스피커가 아닌 "예쁜 빛을 다 바라고 마지막까지도 거름으로 돌려 주려는 수도원 뒷마당의 가을 낙엽더미" 아무도 알아줄 필요도 없으며 내색할 필요도 없는 "오직 주님과



내가 만나는 수도원 가든"에서의 시간은 기쁨과 감사의 "참된 쉼"이었습니다.

땀 흘리며 잡초를 뽑고, 낙엽을 쓸어낼 때 내 마음의 찌꺼기도 함께 쓸려 내려갔고 수도원 사모수련회때 정성껏 음식을 정리할때 나와 우리 가정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하나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흙물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가 온전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음으로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몇가지 교회에는 있지만 수도원 PAM에는 없는 것을 적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오니 참고로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회안에는 권위주의적 분위기(The Generation Gap or There's a strong culture of authority in the church)가 만연합니다. 많은 한인교회가 여전히 유교적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소통에 익숙한 1.5세대와 2세대, MZ세대에게는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교회의 권위주의자의 모습의 명령은 설득력을 잃게 되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추세입니다.

* "삶"과 "신앙"의 괴리(The inconsistency between belief and practice)로 "참된 빛"과 썩음을 방지해 주는 "소금"의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이중적인 생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으로 위장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부도덕하고 독선적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폐쇄성: 기후변화의 위기(교회에서 작은 실천을 하고도 있지만, 노력도 교육도 안하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음), 젠더 문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았음 하는 피해자들과 가족들), 인종차별 (우리도 이민자이면서 식당이나 주위에서 유색인에게 미국인처럼 대하는 가식된 말과 행동들)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무관심으로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 지나친 헌신 강요와 "번아웃 (Burnout)" 저도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인 교회의 특성상 한사람이 여러가지의 사역을 감당할때가 있는데 직장생활, 가정생활도 있는 상태에서 번아웃이 오면 교회를 등지거나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일년을 섬기고 봉사를 했으면 다음해는 온전히 예배에는 집중하고 채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수 많은 프로그램이 교회를 크루즈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요? 지상명령을 주신 주님의 가르침으로 영적 "항공모함"으로 영적전쟁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 공동체의 폐쇄성과 정죄(The closed nature and judgemental attitude of the community)로 정답을 강요하는 문화와 나와 의견이 다르면 맞다/틀리다 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또는 믿음이 작아서라는 판단과 시선은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쓰다 보니 저도 이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공감하는 부분을 몇가지 적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으로 배우고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해 보여주시고 행하신 일들은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신음하는 자, 갈급한 자, 배고픈 자, 상처와 아픔으로 소외된 자, 간음한 자, 거짓말한 자.." 나 같은 자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죽기까지 다 쏟으신 주님이십니다. 머리가 커지는 것보다 우리 가슴이 따뜻해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커지는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생기길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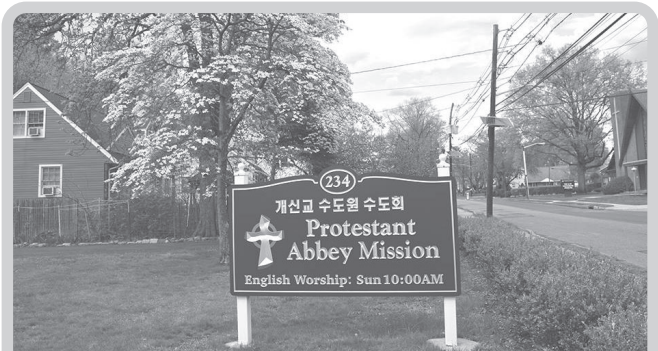
이렇게 이곳 뉴저지 잉글우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도 주님께서 15년이란 시간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수도원을 이끄시고, 이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과 문제들을 때에 따라 행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 한평생 주님을 위해 달려가신 두분. 선한 싸움을 하신 김창길 목사님, 김에스더 원장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퇴 후 편안하게 8명의 소중한 손자, 손녀와 시간을 가지시면서 지내실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감당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7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 * 제5대 수도원 이사장 역임
- * 1998년 1월 미국으로 이민
- * 뉴저지 장로교회 집사
- * 28년동안 Nail Technician 으로 뉴욕 업스테이트 작은 마을에서 Blossom Nail & Spa를 운영함.
- * 수도원 PAM 을 통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 * 사랑하는 아내인 김자영 집사와 대학에 들어가는 아들 예뵘이와 뉴욕 Cornwall on Hudson 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신교수도원수도회 후원이사장 명단

- | | | |
|---------|----------|---------|
| • 초대이사장 | 정우영 안수집사 | 미국 뉴저지 |
| • 2대이사장 | 이익균 안수집사 | 미국 뉴저지 |
| • 3대이사장 | 박범식장로 | 캐나다 토론토 |
| • 4대이사장 | 김경호 장로 | 한국 서울 |
| • 5대이사장 | 이우석 집사 | 미국 뉴욕 |
| • 6대이사장 | 김경호 장로 | 한국 서울 |

후원이사명단

- 박범식, 김경호, 이우석, 심연옥, Paul Kim, Philip Kim, Esther Kim, Samuel Kim